

'선녀벌레집게벌' 대량 사육 체계 구축

농진청, 8개 시군 현장서 효과 확인 중... 방사 지역 추가로 늘리기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의 천적 '선녀벌레집게벌'의 대량 사육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선녀벌레는 단감, 블루베리, 포도 등 기생하는 과수 범위가 넓다. 유충과 성충이 집단으로 나무의 즙을 빨아 나무를 약하게 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등 큰 피해를 준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국제농업기술 협력사업으로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효과가 있는 선녀벌레집게벌을 이탈



리아에서 도입했다. 이후 선녀벌레집게벌 발생 특성을 조사하고 사육 기

술을 연구해 이번에 대량 사육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선녀벌레집게벌을 대량 사육하기 위해 4월 말부터 국립농업과학원 내 대형 망실 온실, 유리온실에 2~3년생 뽕나무를 1미터 간격으로 심는다. 미국선녀벌레 약충 2령을 채집해 사육시설로 옮겨 정착시킨 뒤, 미국선녀벌레가 사육시설에 정착한 것이 확인되면 선녀벌레집게벌을 암수 1대 2의 비율로 사육시설 내에 넣는

다. 선녀벌레집게벌 암컷 어른벌레는 미국선녀벌레의 어린 약충을 잡아먹고 성숙한 약충의 몸에는 알을 낳는다. 선녀벌레집게벌 알은 미국선녀벌레 약충의 몸에서 부화한 후 기생이 끝나면 몸 밖으로 나와 고치를 만드는데 이때 미국선녀벌레 약충은 죽게 된다. 대량 사육 체계를 적용해 지난해 선녀벌레집게벌 고치를 대량 생산했다. 선녀벌레집게벌 1만5,766마리를 사육 시설에 넣은 결과, 4만6,618개의 고치를 생산할 수 있었다. /김욱기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손순욱)과 함께 12일 보훈가족을 초청하여 호국보훈 행사를 실시했다.

'보훈가족에 존경과 깊은 감사'

전북농협-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가족 초청 호국보훈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손순욱)과 함께 12일 보훈가족을 초청하여 호국보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농협 임직원·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가족 등 40여명이 참가했으며 국립 임실호국원을 방문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및 합동참배, 국립임실호국원 스토리텔링, 보훈영상시청으로 진행했다. 이후엔 전북 팝스테이마를 중 한

곳인 임실치즈마을을 방문해 우리 쌀로 만든 재료를 활용해 치즈피자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는 체험을 가졌다. 김영일 본부장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 보훈가족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전북농협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값진 노고를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부패행위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활성화 추진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 운영...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류지영)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1년부터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이달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는 안심변호사에 연임되면서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를 작성했다.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공단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공단 직원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신

고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자세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헬프라인을 통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를 포함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류지영 상임감사는 "공단이 7년 연속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안심변호사 신고제도와 헬프라인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자 보호는 물론, 공정사회와 윤리경영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 류지영 상임감사(가운데)와 국순화 변호사(왼쪽), 소순장 변호사(오른쪽)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제농협, 미래먹거리사업 발굴 프리젠테이션 진행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11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이정용조합장, 상임이사, 기획상무, 신용상무, 경제상무, 하노미트장장 등과 본·지점 차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먹거리사업 발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발표에서는 12명의 차장들이 순서대로 농업·농촌 성장산업의 측면에서 재구조화해 농가소득증진과 부가가치 창출의 길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농업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RE100 관련, 농업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영농형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작물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들도 녹색인증 영농자재를 권장하고 사용함으로써 GAP와 저탄소농업 인증을 통한 고품질 농작물을 생산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농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정용 조합장은 "이번 미래먹거리사업 발굴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책임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즉시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미래농업·농촌 발전과신성장엔진에 김제농협이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RE100 3법 제·개정 등에 발맞추어 영농형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미래를 위한 경제산업 생태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관광개발 특화전략 마련 위한 선진사례 조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 및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방문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만금 관광개발 및 케이블카 사업 개발 특화 전략 마련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를 시행했다. 나경균 사장과 공사 임직원들은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각 사업추진 현황 청취와 더불어 연계시설 견학·체험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바다와 산을



동시에 운영하는 국내 최초 케이블카로 사천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연계 관광시설로 이라마루 아쿠아리움이 위치해 해양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숙박, 레저, 쇼핑, 테마파크 시설 등이 포함된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 해양레저도

시 개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최근 공사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추진중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대상으로 시·중점부 정류장 특화 방안 및 새만금 지역 특성과 연계된 스토리 발굴과 더불어 관광 연계시설 운영 전략을 구상중에 있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이번 체류형 해양관광단지 및 케이블카 운영 선진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 공사도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핵심 관광 앵커시설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